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이석재 · 최상진

한국전산원 중앙대학교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a) 강간통념의 구조를 파악하고, (b) 강간통념과 성폭행과의 관계성, (c) 강간통념수용에 있어서의 성별의 차이, (d) 강간통념의 수용도에 따른 성폭행사건의 지각과 행동의 차이, 그리고 (e)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격특성에 따른 강간통념의 수용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1에서 남녀 대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와 성행동 및 성폭력 경험을 설문조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강간통념이 4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격형,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강간통념은 성행동 및 성폭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통념을 수용할수록 성폭행사건을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각하였고, 성행동과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고 성행동과 성폭행의 경험이 많았다. 연구 2에서는 성역할과 강간통념수용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16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상관분석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격특성을 남성적으로 볼수록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고, 성관련 행동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강간통념의 수용과 남성본위적인 사회의식과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주제어: 강간통념, 강간통념수용도 척도, 성행동, 성폭행, 성폭행 사건지각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은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특정 문화의 산물로 개념화되어 왔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남성 중심의 성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보았다(White & Sorenson, 1992).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떠한 영향요인들이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까? 강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영향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성적 욕구와 같은 생리심리학적 요

인(Ellis, 1991), 성적자극과 그에 따른 성적 흥분(Hall, 1996), 분노 등의 심리적 요인(Berkowitz, 1993),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표현,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역할 등의 사회화 과정(Groth, 1979; Lisak, 1991)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와 같은 왜곡된 인지적 요인이 여성을 성적 피해자로 하는 강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본다. 일부 학자들은 강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으로서 강간통념(rape myths)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생성되며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Groth, 1979; Koss et al, 1994). Brownmiller(1975)는 강간의 경우 성이 관여되지만, 강간은 단순히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행위이며 권력의 표현으로 보았다. 따라서 강간의 목적은 성(sex)을 취하기 위한 영향력의 행사에 있으며 성을 취하거나 피해자를 상해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관심은 강간통념이 성폭행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 강간통념을 수용할수록 성행동과 성폭행 경험이 많은지, 강간통념의 수용도에 따라서 성폭행사건을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강간통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질문들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강간통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Feild(1978)는 강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일반시민, 경찰관, 강간범, 강간피해 상담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로서 태도의 구조는 사회계층별로 유사하지만 강간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성별, 결혼여부, 인종이 강간에 대한 태도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Feild는 강간에 대한 태도와 강간통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Burt(1980)는 강간통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간, 강간피해자, 강간범죄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녀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고, 대인간 폭행을 수용하는 정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은 강간통념의 예언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강간통념의 기본구조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강간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 강간통념이 성행동 또는 성폭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려는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였다.

Burt(1980)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간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성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남성 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스크립트(scripts)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Muehlenhard & Linton, 1987). 강간범이나 조사대상인 대학생 가운데 성폭력을 해보았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는 경우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 (Malamuth, 1981).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남성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수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석재(1999)는 Burt(1980)가 다루지 않은 강간통념들 (Fitzgerlad, 1993; Kelly, 1988)과 Burt의 강간통념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새로운 강간통념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새로운 강간통념척도는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Burt, 1980; Feild, 1978)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Bem(1974)의 성역할척도에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통념의 수용은 태도, 고정관념 및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이며 피해자는 여자이고, 가해자는 면식범인 비율이 높고, 피해연령은 특정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는 사건을 치안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Berry, 1995; Koss et al., 1994). 국내의 한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문제로 상담한 1천 21건을 분석한 결과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의 64%가 친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친인척, 동네사람, 데이트 상대 등 평소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였으며 남자도 8.6%에 이르렀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3분의 1만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며, 남자의 경우는 대부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금자, 1997).

성폭력의 피해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녀 대학생의 경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3개 종합대학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성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84%가 한 차례 이상의 성적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강제로 키스나 애무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1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동아리나 학과선배(87%)가 가장 많았고, 동료(35.5%), 후배나 교수 또는 조교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한겨레신문, 1998b). 중부지

방의 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학생의 66%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998a).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자만이 아니라 적은 비율이지만 남자가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주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가 1996년 6월부터 3년간 실시한 577건의 상담 가운데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피해건수가 공개되는 경우가 매우 적을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율은 조사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보면, 가해자로서 남자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생이 그러한 통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로서 우리성(wenness)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자신을 대학생이라는 내집단의 일원으로 지각하는 동질적인 집단이다. 우리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정과 친밀감을 느낀다(최상진,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피해실태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며 비슷한 연령층인 경우가 많다. 이성간에 신분이 분명하고 친밀한 관계인 경우, 친밀도에 따라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성적 접촉이 수용되는 정도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이성의 행동이 저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공격적이라는 사실도 또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가해자와 당사자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Koss et al., 1988; Warshaw, 1988). 또한 이성간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데이트 중에 폭행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실제로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경우, 강간통념이 공통적으로 성행동에 영향을 미쳤다(Hall & Hirshman, 199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a) 강간통념의 구조를 파악하고, (b) 강간통념과 성폭행과의 관계성, (c) 강간통념의 수용도에 따른 성폭행사건의 지각과 행동의 차이, (d) 강간통념수용도, 성경험과 성

폭행사건 지각 등에서의 성별의 차이, 그리고 (e)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격특성에 따른 강간통념의 수용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가운데 앞의 4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1을 수행하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연구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2를 수행하였다.

연구 1: 강간통념의 구조와 성폭행 사건 지각

이석재(1999)는 남자 대학생과 죄수를 대상으로 강간통념의 수용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강간통념을 많이 수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행동과 성폭력 경험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개별 하위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는 남자 대학생과 죄수간에 차이가 있었고, 하위강간통념이 성행동과 성폭력과 갖는 상관의 유형도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통념의 기본구조가 사회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강간통념과 성 관련 행동과의 관계에 내재하는 심리과정이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1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조사집단으로 하여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강간통념수용도는 성행동 및 성폭행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이석재, 1999), 강간범이나 조사대상인 대학생 가운데 성폭력을 해보았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는 경우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 이러한 결과는 강간통념이 성 관련 과거행동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새로운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행 사례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이 사례를 어떻게 지각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에 강간통념이 그들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강간통념은 이성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지각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에서와 같이 강간통념을 가진 사람은 이성의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왜곡되게 지각하여 처리한다. 성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남자는 여성이 적개심을 보일 때, 여성의 적개심을 실제

보다 더 약하게 지각한다(Malamuth & Brown, 1994). 따라서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강간통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관여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성행동과 성폭행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의 사회화과정은 남성의 성적 우월 지위가 수용되고 강간통념이 처벌받기보다는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론된다. 선행연구들은 남자가 강간의 주된 가해자로 보고하였다(Berry, 1995).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는 지배자의 위치에, 여자는 순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순종하는 여성에게는 남성들이 쉽게 성행동이나 성폭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는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남성의 강간이 일어나기 쉽다(Allison & Wrightsman, 1993). 강간은 단순히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인 행위이며 권력의 표현이다(Brownmiller, 1975; Roth, 1979). 이러한 주장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85명(남자 94명, 여자 91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21.58세였다($SD = .18$).

조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규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의 목적과 응답요령을 소개하였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당신이 평소에 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남성이나 여성의 성(性)이나 성관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절대 비밀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지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이름, 학과, 학번)을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질문에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별, 나이를 설문지에 적도록 한다). 자, 그럼 다음 장에 있는 지시문을 자세히 읽으시고 각 질문에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대해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이 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시작하여 주십시오.

연구자는 조사대상자들이 응답을 마쳤다고 판단되었을 때,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감사인사와 함께 조사목적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조사도구. 본 조사에는 대학생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간통념척도(이석재, 1999)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urt (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수정하고 새로운 강간통념을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모두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질문지는 모두 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겹장에는 지시문이 있고, 첫 쪽과 2쪽에는 강간통념을 조사하는 20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응답자가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강간통념 문항에 대해 9점 척도 상에 찬반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는 Likert 형 9점 척도로서 1(아주 반대)에서부터 9(아주 찬성)까지였다. 통념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남자가 성행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 “성욕이 완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등과 같다.

3쪽에는 조사대상자의 성행동과 성폭행 경험을 알아보는 32개의 문항이 있었다. 이 가운데 27개 문항은 일반적인 성행동을 알아보는 성행동척도(이석재, 1999)이다. 예를 들면, “성행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유혹하

는 말을 하였다”, “손으로 자위를 하였다” 등이었다. 이 석재(1999)는 이 성행동척도를 사용하여 남자 대학생과 남자 죄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서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에 대한 경험이 많음을 보고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폭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이성을 희롱하였다”, “이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였다”,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하였다” 등이었다. 이들 성행동과 성폭행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두 6점 척도 상에 얻어졌다. 지난 6개월간 위의 5가지 성폭행을 해본 경험에 대해서 0(전혀 없었다), 1(1회에서 2회), 2(3회에서 5회)²⁾, 3(6회에서 8회), 4(9회에서 10회), 그리고 5(11회 이상)이었다.¹⁾ 이와 같이 성행동과 성폭행에 대한 응답은 해당 행동에 대한 경험의 여부(예, 아니오)를 묻는 양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빈도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후자의 방법이 집단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변별함을 보였다(Andersen & Broffitt, 1988). 4쪽에는 남녀 대학생이 성폭행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사례가 제시되었다(부록 참고). 마지막 쪽에는 앞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이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알아보는 질문과 조사대상자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사례에 대한 지각은 사례의 폭력성, 사례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의 음란성 및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등으로서 주로 강간통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얻어졌다. 응답자의 예상 행동을 묻는 질문은 적극적인 성행동과 성폭행 및 체포되지 않는 경우 성폭행 가능성을 묻는 것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없다)에서부터 5(아주 높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얻어졌다.

1) 이석재(1999)는 지난 6개월간 성폭행을 해본 경험을 1(전혀 없었다), 2(1회에서 5회), 3(6회에서 10회) 그리고 4(10회 이상)과 같이 4점 척도상에서 측정하였으나, 응답의 표준편차(남자 대학생 .24, 죄수 1.14)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측정기준을 더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안에 따라서 응답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측정하는 빈도의 전체 범위는 같으나 척도는 6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였다.

결과 및 논의

측정도구의 분석

강간통념의 요인구조 남녀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척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²⁾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eigenvalues가 1이상인 것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대상으로 scree plot(Cattle, 1966)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4개 요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표 1 참고). 이들 요인은 강간통념척도 점수의 전체변량 가운데 62.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하되는 강간통념을 선정하는 결정치는 조사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35로 하였다(Stevens, 1996).³⁾ 첫 번째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35이상인 강간통념은 모두 11개였다. 이 가운데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 집을 찾아가는 것, 술에 취해서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애무상황을 방치하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 등에 대한 통념들은 .70수준의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또한, 초면인 사람의 차를 얻어 타다가 강간당하는 경우 등도 같은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통념들은 선행연구(이석재, 1999)에서 성

2) 한 익명의 평가위원은 본 연구에서 개인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재는 목적으로 강간통념척도를 사용하면서 왜 요인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강간통념의 기본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왜곡된 인지의 공통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요인을 통하여 왜곡된 인지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녀가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의 구조는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강간통념의 공통차원(하위요인)을 찾아내고 그 차원 상에서 남녀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차이가 있다면 인식차이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지각, 성행동 및 성폭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3) Stevens (1996)는 각 요인별로 어떤 변인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overall α 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alpha = .01$ 에서 양방검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표집크기가 $n = 50$ 으로부터 1000까지인 경우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별하는 임계치(critical value)를 표로 제시하였다(예, $n = 50$, C.V. = .72; $n = 100$, C.V. = .51; $n = 200$, C.V. = .36; $n = 400$, C.V. = .26).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Stevens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랐다.

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폭행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인1에서 강간 당하는 상황을 조성하거나(.47), 분노나 보복의 동기로 강간을 보고하는 것(.41)도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나 요인3(각각 .60, .46)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고, 남자의 식사대접에 여자는 섹스를 허락한다(.42)는 통념은 요인4(.56)에도 부하되었다. 따라서 이들 3개 통념은 요인1에서 제외되었다. 요인1에 속한 통념들은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자에 있다는 것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44.36%를 설명하였다.

요인II에는 모두 4개 통념이 .6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들 통념 가운데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성

은 저소득출신이라는 통념을 제외한 3개의 통념들은 선행연구(이석재, 1999)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을 나타내는 요인에 속하였다. 요인2에 강간을 보고하는 여성은 이전에 성경험이 있고(.47) 여성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강간을 날조하는 것(.42)이라는 강간통념도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요인3에 더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통념의 의미로서도 요인3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요인2는 강간피해자는 저소득 가정출신, 피해자의 학대받은 경험, 피해자의 성욕, 성관계에 대한 평판 등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피해자의 성경험'으로 해석되었다. 두 번째 요인

요인III은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기고

표 1. 강간통념의 요인분석

강 간 통 념	요인I	요인II	요인III	요인IV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70			.35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뽕'이다	.70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건잡을 수 없게 두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	.69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강했다면, 그녀는 당할 만하다	.68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성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67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64			.40
끼가 있는 여자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	.56	.43	.41	
여자가 친근감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인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51		.41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77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75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67	.41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65	.37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75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47	.64	
보고된 대부분의 강간사태는 임신된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이 날조한 것이다		.42	.62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	.47		.60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	.41	.39	.46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				.75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				.67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42			.56
Eigenvalues	8.87	1.63	1.08	1.00
설명변량	44.36	8.14	5.42	5.01

(.75), 강간을 보고하는 여성은 강간당하기 이전에 성경험이 있고(.64), 무의식적으로 강간당하는 상황을 조성한다(.60) 등의 통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통념들은 피해자의 음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강간을 날조하거나(.62), 분노나 보복의 동기로 강간을 보고한다(.46)는 통념은 선행연구(이석재, 1999)에서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요인에 속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요인III은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으로 해석되며, 전체변량의 5.42%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IV에는 여성의 특정 행동들이 곧 성을 허락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통념(예,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을 뜻함, 남자의 지극한 식사대접으로 여성의 섹스를 허락 받음)과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56)는 통념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러한 통념들은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5.01%를 설명하였다.

성행동 관련 척도의 측정치. 앞서 분석한 강간통념의 4개 하위요인과 성행동 및 성폭력 척도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내적일치도(Cronbach, 1951)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대학생들은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에 대한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통념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3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4개 통념척도의 내적일치도 또한 적절하게 나타났다. 조사대학생들이 지난 6개월간 경험한 평균 성행동은 조사항목별로 평균 2회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4) "키스를 하며 상대의 입에 혀를 넣어보았다"는 행동경험이 많았으나 그 빈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4)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행동척도(이석재, 1999)를 사용하여 측정된 응답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째 요인에는 12개 성행동이 속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 성행동"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지나 치마위로 성기를 만져보았다"를 제외한 11개 성행동이 이 요인에 속하였다. 따라서 적극적 성행동은 반복적으로 얻어졌으며, 내적일치도가 .95로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성행동을 설명하는 비율은 27.9%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를 간결하게 제시를 위하여 이 요인에 대해서만 분석자료를 제시하였다.

(SD=2.13). 다음으로 "이성과 성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이성의 가슴을 만졌다", "이성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보았다" 등과 같은 성행동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행동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성폭행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M=.04)와 같은 적극적인 신체적 접촉보다는 이성을 회통하는(M=.40) 경우가 많았고, 강제적인 키스가 다음으로 많이 경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폭행척도의 내적일치도는 .72로서 적절하였다(Nunnally, 1978).

표 2 강간통념, 성행동, 성폭력의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일치도

강간통념과 성 관련 행동	M	SD	α
강간통념	3.10	1.34	.93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3.95	1.82	.89
피해자의 성경험	2.42	1.31	.79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2.45	1.33	.83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2.87	1.52	.66
성행동	.96	1.28	.95
이성의 옷을 벗겨보았다	.85	1.51	
이성의 가슴을 만졌다	1.26	1.82	
이성의 성기를 만져 보았다	.88	1.64	
키스를 하며 상대의 입에 혀를 넣어 보았다	1.86	2.13	
이성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 보았다	1.26	1.79	
이성과 혼숙을 하였다	.57	1.30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48	1.17	
이성과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36	1.66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를 가졌다	.76	1.51	
이성을 유혹하는 말을 해보았다	.75	1.36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였다	.64	1.35	
바지나 치마위로 성기를 만져보았다	.82	1.48	
성폭행	.20	.45	.72
이성을 회통해 보았다	.40	1.04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했다	.18	.57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04	.27	
강제로 이성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	.16	.60	
이성이 원하지 않았으나 몸을 애무했다	.20	.78	

주: 강간통념, 1 = 아주 반대, 9 = 아주 찬성; 성행동과 성폭행, 0 = 전혀없다, 1 = 1~2회, 2 = 3~5회, 3 = 6~8회, 4 = 9~10회, 5 = 11회 이상.

강간통념과 성행동 및 성폭행과의 관계

성행동과의 관계. 표 3에서 보듯이, 전체 강간통념 척도 점수와 성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1, p < .001$).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예언과 일치하고 이석재(1999)의 결과를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다. 세부 강간통념 가운데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와 성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성격험에 대한 통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과의 관계. 표3에서 보듯이, 강간통념과 성폭행의 관계성은 강간통념과 성행동의 관계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강간통념척도 점수와 성폭행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4, p < .001$).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예언을 지지하고 이석재(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세부 강간통념 가운데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와 성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피해자의 성격험에 대한 통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정적인 추세는 보여주고 있다($p = 1.0$).

표 3. 강간통념과 성행동 및 성폭행과의 상관관계

강간통념	성행동	성폭행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34***	.33***
피해자의 성격험	.10	.12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19**	.29***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37***	.40***
전체	.31***	.34***

** $p < .01$, *** $p < .001$.

표 4. 강간통념수용도의 성별차이

강간통념	남자		여자		F(1, 183)
	M	SD	M	SD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4.97	1.75	2.89	1.17	89.66***
피해자의 성격험	2.85	1.37	1.97	1.09	22.83***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3.07	1.38	1.80	.91	53.95***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3.67	1.56	2.04	.93	73.87***
전체	3.87	1.29	2.31	.82	

*** $p < .001$.

조사집단간 차이 검증

강간통념수용도. 조사대상집단간에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언하였다. 강간통념을 구성하는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변인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bda = .62, $F(4, 180)=27.97, p = .001$. 일원후속변량분석 결과는 4개의 하위강간통념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즉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성폭행 피해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M=4.97$ 과 2.89),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강간피해자는 이전에 성격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M=1.97$ 과 2.85), 피해자의 음란성이 높고 강간을 허위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M=1.80$ 과 3.07),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통념에 동의하지 않았다($M=2.04$ 와 3.67). 이 결과는 남성본위적인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남성은 여성보다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갖게 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한다. 특히 남녀 두 집단 모두 성폭행피해자의 책임귀인에 대한 통념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 성행동에 있어서 조사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2개 성행동에 대한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다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bda = .74, $F(12, 171) = 4.96, p = .0001$. 일원후속변량분석은 12개 성행동 가운데 8개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특히,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이성의 옷을 벗겨보고($M = 1.32$ 와 .37), 바지나 치마위로 성기를 만져보고($M = 1.26$ 과 .37), 이성의 가슴을 만지고($M = 1.18$ 과 .70),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M = .80$ 과 .17)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행동으로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키스를 하며 상대의 입에 혀를 넣거나 이성과 성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동의 정도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p > .10$). 또한 이성과 혼숙을 하거나,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는 행위도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더 자기주장적으로 성적 표현을 하는 데 비해서 여자 대학생은 수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성폭행을 한 경험에 있어서 조사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폭행을 나타내는 5개의 행동에 대한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조사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bda = .93, $F(5, 179) = 2.51, p < .05$. 다음으로 후속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성폭행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즉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더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하

표 5. 성행동의 성별차이

성행동	남자		여자		F(1, 183)
	M	SD	M	SD	
이성의 옷을 벗겨보았다	1.32	1.73	.37	1.04	20.18***
이성의 가슴을 만졌다	1.81	1.96	.70	1.47	18.54***
이성의 성기를 만져 보았다	1.18	1.68	.57	1.54	6.63**
키스를 하며 상대의 입에 혀를 넣어 보았다	2.09	2.17	1.64	2.08	2.05
이성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 보았다	1.66	1.87	.85	1.61	9.86***
이성과 혼숙을 하였다	.74	1.50	.39	1.03	3.55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80	1.43	.17	.70	14.38***
이성과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55	1.72	1.18	1.59	2.32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를 가졌다	.98	1.60	.53	1.39	4.17*
이성을 유혹하는 말을 해보았다	1.00	1.55	.50	1.09	6.51*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았다	.75	1.40	.53	1.30	1.28
바지나 치마위로 성기를 만져보았다	1.26	1.71	.37	1.04	17.93***
전체	1.26	1.37	.65	1.1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성폭행 경험의 성별차이

성행동	남자		여자		F(1, 183)
	M	SD	M	SD	
이성을 희롱해 보았다	.51	1.19	.28	.86	2.38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했다	.30	.75	.06	.23	8.86**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05	.23	.03	.31	.25
강제로 이성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	.27	.75	.06	.35	5.97*
이성이 원하지 않았으나 몸을 애무했다	.32	.94	.08	.54	4.56*
전체	.29	.54	.01	.30	

* $p < .05$, ** $p < .01$.

고($M = .30$ 과 $.06$), 이성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고($M = .27$ 과 $.06$), 몸을 애무($M = .32$ 와 $.086$)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성을 희롱하는 정도는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다른 성폭행보다 정도가 컸으나 집단간에 차이는 없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있어서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모두 $p > .10$). 이 결과는 서울에 있는 3개 종합대학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4%가 한 차례 이상의 성적 괴롭힘을 당하였고, 강제로 키스나 애무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15.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한겨레신문, 1998b)와 국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의 피해건수에서 여성의 피해가 절대 다수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강간통념과 성행동의 관계. 강간통념과 성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서 보듯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전체 강간통념점수와 성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r = .35, p < .0001$),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상관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10$). 남자 대학생의 경우,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통념수용도는 자신의 성행동과 상관이 없었으나, 나머지 3개에 대한 통념은 성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통념과 성행동은 부적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 = -.22, p < .05$). 강간통념과 성행동간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남녀 모두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통념은 성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는 적극적인 성행동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성별 강간통념과 성행동 및 성폭행 경험과의 상관관계

강간통념	성행동		성폭행	
	남	여	남	여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36***	.06	.36***	.01
피해자의 성경험	.16	-.22*	.13	-.12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23*	-.18	.34***	-.13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32**	.24*	.45***	.04
전체	.35***	-.03	.39***	-.06

* $p < .05$, ** $p < .01$, *** $p < .001$.

강간통념과 성폭행의 관계. 조사대상인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에 따라서 강간통념과 성폭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7에서 보듯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전체 강간통념점수와 성폭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r = .39, p < .0001$),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상관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10$). 하위 강간통념별로 보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통념수용도는 자신의 성행동과 상관이 없었으나, 나머지 3개에 대한 통념은 성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강간통념과 성폭행 경험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의 유형은 성행동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폭행 사례에 대한 지각과 예상행동 분석

집단간 차이 검증. 조사집단간에 성폭행 사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례의 폭력성과 강간통념으로 해석하는 정도(사건의 책임, 피해자의 경솔, 피해자의 성경험,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경험,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는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다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Wilks's Lambda = .73, $F(6, 178) = 10.93, p = .0001$, 일원후속변량분석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특히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피해 여성이 경솔하고($M = 2.49$ 와 2.13), 이전에 성경험이 있을 것이며($M = 2.54$ 와 1.48), 성폭행 당시 성관계를 즐겼고($M = 1.92$ 와 1.45), 피해여성이 “안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관계를 원했다고($M = 2.04$ 와 1.63) 응답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사건은 폭력적이었고, 사건이 일어난 것이 남자 때문이라고 보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p > .10$).

다음으로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대상자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성행동(예,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 요구, 이성을 유혹)과 성폭행(예, 강제로 성관계, 키스) 및 체포되거나 처벌받지 않을 경우 성폭행의 가능성에 대한 응답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다원변량분석을 실시

표 8. 성폭행사태에 대한 지각과 예상행동 분석

성행동 지각과 예상행동	남자		여자		F(1, 183)
	M	SD	M	SD	
성폭행 사례의 지각					
사례내용이 폭력적이다	3.73	.98	3.99	.86	3.54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남자책임이다	3.89	1.01	4.09	.88	1.94
일이야 어찌되었든 여자가 경솔했다	2.49	1.06	2.13	.93	5.94*
그녀는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2.54	1.03	1.48	.74	64.10***
그녀가 성관계를 통해 즐겼을 것이다	1.92	.88	1.45	.69	16.03***
그녀가 "안돼"했지만, 사실은 성관계를 원했다	2.04	1.00	1.63	.81	9.57**
예상행동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 요구하겠다	4.07	1.17	3.28	1.70	14.00***
이성을 유혹하는 말을 하겠다	3.60	1.19	2.41	1.25	44.22***
이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겠다	1.55	.94	1.01	.11	30.25***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하겠다	1.99	1.13	1.20	.52	36.96***
체포나 처벌받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하겠다	2.30	1.37	1.36	.84	31.27***

주.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아주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bda = .67, $F(5, 179) = 17.40$, $p = .0001$. 일원후속변량분석은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혹하고, 이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갖고, 키스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체포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모두 $p < .001$). 이상의 결과는 동일한 성폭행사태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더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시각에서 성폭행사태를 지각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페미니스트의 입장에 따르면, 성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의 사회화과정은 다르기 때문(White & Sorenson, 1992)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강간통념과의 관계. 조사대상자가 수용하고 있는 강간통념이 성폭행 사례를 지각하는 것과 조사대상자 자신이 사례의 당사자인 경우 취할 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9에서 보듯이, 강간통념은 성폭행 사례를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와 상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대학생의 경우 모두 강간통념은 사건을 폭력적으로 지각하는 것($r = -.39$)과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각($r = -.3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p < .0001$). 성별에 관계없이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을수록 사건은 덜 폭력적이고, 남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솔함, 피해자의 이전 성경험, 성폭행시 성관계를 즐김, 피해 여성의 "안돼"라는 응답의 진실은 성관계를 원함이라는 지각과 강간통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p < .0001$). 본 연구에서 예언하였듯이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성별에 구분이 없이 성폭행에 대한 지각과 추론을 강간통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그러나 각 지각내용별로 상관크기를 성별로 차이 검증(Z_{diff} test)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모두 $p > .10$).

성폭행 사례의 당사자가 조사대상자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세부 질문과 전체 강간통념척도 점수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강간통념과 조사대상자의 예상행동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표 9 참고). 즉 강간통념을 많이 수용하고 있을수록 적극적으로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를 요

표 9. 성폭행사례의 지각, 예상행동과 강간통념과의 상관관계

사례지각과 예상행동	강간통념		
	남자	여자	전체
성폭행 사례의 지각			
사례내용이 폭력적이다	-.41**	-.36***	-.39***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남자책임이다	-.42***	-.25*	-.35***
일이야 어찌되었든 여자가 경솔했다	.35***	.26*	.36***
그녀는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39***	.36***	.56***
그녀가 성관계를 통해 즐겼을 것이다	.42***	.22*	.44***
그녀가 “안돼”했지만, 사실은 성관계를 원했다	.47***	.25*	.44***
예상행동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 요구하겠다	.40***	-.20	.24***
이성을 유혹하는 말을 하겠다	.41***	.05	.45***
이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겠다	.25*	.19	.39***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하겠다	.38***	.25*	.50***
체포나 처벌받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하겠다	.35***	.12	.44***

* $p < .05$, ** $p < .01$, *** $p < .001$.

구하고($r = .40$), 이성을 유혹하고($r = .41$), 이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키스($r = .38$)와 성관계($r = .25$)를 갖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의 경우 강간통념과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하겠다”는 예상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r = .25, p < .05$), 다른 예상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0$). 이는 강간통념이 조사대상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폭행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세부적인 사건내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Malamuth(1981)의 연구결과와 같이 남자 대학생은 체포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2: 성역할과 강간통념수용도의 관계

연구 1에서 강간통념의 수용은 자신의 성행동 및 성폭력 경험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여자 대학생보다는 남자 대학생이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고 성 관련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관계없이 강간통념을 수용할수록 성행동과 성폭력의 경험이 많았다. 또한, 강간통념을 수용한 사람일수록 성폭력 사건을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고, 자신이 개입된 상황

이라면 성행동과 성폭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간통념의 수용은 개인의 어떠한 태도 및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성폭력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강간통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생성되며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Groth, 1979; Koss et al., 1994).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행위이며 권력의 표현이다(예, Brownmiller, 1975).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신을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지각하고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강간통념을 더 수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남자 대학생과 남자 죄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간통념수용도는 Bem(1974)의 남성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이석재, 1999). 성적 공격성을 보이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자신을 덜 여성적이라고 보고하였다(Lisak & Ivan, 1995).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성격특성을 남성성이 많은 것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행동과 성폭력의 경험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16명(남자 65명, 여자 51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21.8세였다($SD = .24$).

조사절차

본 연구는 연구 1과 같이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규수업시간에 20명에서 30명 범위의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조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 1에서와 같이 첫 장에 지시문이 제시되었고 2쪽에는 연구 1에서 사용한 20개의 강간통념이 제시되었고, 3쪽에는 강간통념의 수용이 성역할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척도(Feild, 1978)가 제시되었다(세부문항은 이석재(1999) 부록 참고).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여성의 성역할과 행동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해 9점 척도 상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였다. 척도는 Likert형 9점 척도로서 1(아주 반대)에서부터 9(아주 찬성)까지였다. 4쪽에는 연구 1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성행동과 성폭행 경험을 알아보는 문항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성행동과 성폭행의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조사지의 마지막 쪽에는 Bem

(1974)의 성역할 척도를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한국 성역할척도(정진경, 1990)에서 남성성, 여성성 및 긍정성을 나타내는 60개의 성격특성들이 제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각각의 성격특성이 어느 정도 자신을 잘 표현하는지를 생각하고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항상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결과 및 논의

강간통념과 다른 척도와의 관계

다른 척도와의 상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간통념 총점은 성역할 고정관념($r = .60$), Bem(1974)의 성역할척도에서 남성성($r = .18$)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성역할척도의 여성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n. s.$).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은 Bem의 성역할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상관의 방향은 정적으로 나타났다($r = .17$). 다른 연구는 두 척도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예, 이석재, 1999). 이상의 결과로 보면,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남성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통념이 성역할 고정관념 및 Bem의 남성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강간통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에 대한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Groth, 1979)을 지지하는 것이다.

표 10. 강간통념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

상관된 척도	성역할 고정관념	Bem의 성역할		성행동	성폭력
		남성성	여성성		
강간통념	.60***	.18*	.04	.34***	.27**
성역할 고정관념		.17	.10	.21*	.14
남성성			.12	.21*	.13
여성성				.10	.12
성행동					.40***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강간통념과 성역할, 성행동 및 성폭행과의 상관관계

강간통념	성역할 고정관념	Bem의 성역할		성행동		성폭력
		남성성	여성성	적극적 행동	전체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62***	.26**	.17	.21*	.31***	.25**
피해자의 성격형	.35***	.06	-.13	.19*	.23**	.14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43***	.01	-.03	.10	.24**	.22*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48***	.24**	-.02	.25**	.36***	.26**
전체	.60***	.18*	-.04	.22*	.34***	.27**

* $p < .05$, ** $p < .01$, *** $p < .001$.

성행동과의 관계. 강간통념 및 다른 척도와와의 상관 분석을 위하여 먼저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행동의 내적일치도(Cronbach, 1959)를 산출한 결과 .93으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성행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다른 척도와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강간통념은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Bem의 남성성도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모두 $r = .21$) 여성성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과의 관계. 강간통념은 조사응답자의 성폭행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27$)이 있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성은 강간통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n. s.$).⁵⁾ 이 결과는 연구 1의 결과 및 이석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강간통념 하위척도와와의 상관. 강간통념의 하위척도들은 성역할 관련된 척도와 성행동 및 성폭력과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고). 강간통념 가운데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은 성역할 고정관념($r = .62$), Bem(1974)의 성역할 남성성($r = .26$)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1에서 측정된 12개 적극적 성행동($r = .21$) 및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전체 성행동의 평균점수와도 통계적인 정적 상관($r = .31$)을 보였다. 또한, 성폭력과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격형,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통념은 성역할 관련 척도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는 성역할 고정관념($r = .48$)과 Bem(1974)의 성역할 남성성($r = .24$)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성행동 및 성폭력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모두 $p < .01$).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격특성을 남성적으로 본 조사대상자일수록 강간에 대한 인식에서 성폭행피해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성의 행동을 성적인 측면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성행동을 한 경험이 있고,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가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서 강간통념이 여성을 성적 피해자로 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만일 강간통념이 영향요인이라면, 강간통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폭행 경

5)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행동과 정적인 상관(각각 $r = .47$ 과 $.23$)이 있었다. 이들 상관의 정도를 차이 검증한 결과는 강간통념이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성행동과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_{diff} = 3.56, p < .001$). 강간통념은 조사대상자의 성폭행 경험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보이는 것으로 강간통념척도가 변별타당도와 예언타당도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험이 많고, 성폭행 사건을 왜곡되게 지각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남성지배적인 유교문화권에서 남성이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남성중심의 성적 가치를 내재화한다면 여성에 비하여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먼저 남녀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을 측정하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결과는 강간통념이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격형,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및 이 성행동에 대한 오해 등과 같이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조는 남자 대학생과 남자 죄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석재, 1999)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강간통념구조는 피해자의 성격형,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경솔,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및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등과 같이 6개 요인이었다. 현재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4개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요인들과 대부분 중복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피해자의 경솔은 본 연구에서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으로 속하였고,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 속하였던 3개의 문항 가운데 두 문항(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으로 그런 상황을 조성,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은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요인으로, 나머지 한 문항(강간당하는 여성은 저소득 가정 출신)은 피해자의 성격형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남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분석한 경우에는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이 분화되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과 피해자의 경솔로 분리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강간통념의 기본구성요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강간통념의 내적일치도(Cronbach, 1951)는 .93으로 높게 나왔고 4개 하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와 성행동과 성폭행에 사용된 항목의 내적일치도들도 각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Nunnally, 1978).

본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로서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대학생일수록 성행동과 성폭행의 경험이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성격형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강간통념 전체점수는 성행동 및 성폭력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석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강간통념의 수용이 개인의 성 관련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강간통념의 하위요소를 보면, 피해자의 성격형에 대한 통념은 성행동과 성폭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두 변인간에 정적 상관이 있으나(성행동 $r = .16$, 성폭행 $r = .13$),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부적 상관(성행동 $r = -.22$, 성폭행 $r = -.12$)이 있어서 남녀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간통념을 수용한 사람은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성폭행관련 사건에 대한 지각이나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개입되는 경우 예상되는 행동에 있어서 강간통념을 덜 수용한 사람과 차이를 보일 것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강간통념의 수용이 조사대상자의 과거 성행동과 성폭력경험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폭력 사례를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폭력 사건을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을수록 사건을 폭력적이지 아니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은 경솔하였고, 이전에 이미 성격형이 있었을 것이고, 성폭행을 당하는 중에도 성관계를 즐겼을 것이고, 피해자가 “안돼”라고 말하였지만 그 본심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강간통념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과정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와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만이 독특하게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인지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성이 개입되는 상황을 왜곡되게 지각함으로써 스스로를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들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성폭력사례를 읽고 조사대상자가 예상행동으로 응답한 내용과 강간통념의 수용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조사대상자일수록 성폭행 상황에 직면하면,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성을 유혹하고, 이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키스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신이 체포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강간통념이 객관적인 사건의 인지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간범이나 조사대상인 대학생 가운데 성폭력을 해보았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는 경우 강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강간통념을 수용한 사람일수록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하겠다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였다. 국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의 사례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피해건수에서 남자가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6%~9%에 이른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은 가해자가 남성 또는 여성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인 남자와 여자 대학생간에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성행동과 성폭력을 경험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조사집단간의 강간통념수용도, 성행동과 성폭행 경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고 있었고, 강간통념의 하위통념들의 수용도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분명하였다. 성행동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남자 대학생의 경험이 여자 대학생의 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행동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키스를 하며 상대의 입에 혀를 넣어 보았다”와 “이성과 성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의 경우는 조사대상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성행동의 경험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더 많고 더 주도적이지만, 여자 대학생의 경우도 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폭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성을 회롱해 본 경험이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에 있어서는 남녀 대학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조사결과를 보면, 강간범의 가해자는 남자이다(Berry, 199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7).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내용이 사회범죄로서가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성경험이라고 한정시켜 보면, 적어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제층에서 이성에 대한 회롱이나 성관계는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와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남녀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의 수용도 차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폭행사례를 지각하고 자신의 성행동을 예측하는데에도 관련이 있었다.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강간통념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폭행 사례를 지각하였고, 사례와 같은 상황에 관여된다면 적극적인 성행동과 성폭력을 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간통념이 성역할 고정관념(Field, 1978)과 Bem(1974)의 성역할 남성성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는 강간통념이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로서 자리잡고 있는 남성분위적인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부 사회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남성이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강간은 남성의 힘, 권력, 권위주의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강간통념은 대인간 폭력수용척도(Burt, 1980)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고, 대인간 폭력수용척도는 성역할척도의 남성성정도도 정적 상관성이 있다(이석재, 1999). 대인관계에서 폭력의 사용을 용인하고 남성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다. 남성성은 성행위 및 성폭력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나 여성성은 상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이 성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남성 지배적인 사회구조에서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행위이며 힘의 표현이라는 주장(Brownmiller, 1975)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개인의 강간통념수용도가 성행동과 성폭력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논리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1과 연구 2에서 강간통념과 성행동 및 성폭행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강간통념수용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1에서 강간통념을 수용한 사람일수록 성폭행 사건을 강간통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여 지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강간통념의 수용도 → 성폭행사건에 대한 왜곡된 지각 → 성폭행에 이르는 인과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이석재, 1999)의 결과를 보면, 강간통념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성

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LISREL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인과적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강간통념의 수용도에 따른 성폭행 사건의 지각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례를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지각과 예상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이와 같은 자기보고식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외적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폭행 사건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실험자극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와 외적타당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⁶⁾

참 고 문 헌

박금자 (1997).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대책. 청소년 성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지방세미나. 전주, 전라북도, 10월 15일.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2.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겨레신문 (1998a). 충북대 여학생 66% “성폭력 경험”. 1998년 3월 3일자.

한겨레신문 (1998b). 여대생 80% “성 괴롭힘 당했다”. 1998년 3월 26일자.

Allison, J. A., & Wrightsman, L. S. (1993). *Rape: The misunderstood crime*. Newbury Park, CA: Sage.

Andersen, B. L., & Broffitt, B. (1988). Is there a reliable and valid self report measure of sexual behavior.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7, 509-525.

6) 이들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본 연구자들이 후속연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서 익명의 두 평가위원들도 같은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성폭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매개변인을 종합하는 구조적 인과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 Hall.

Berry, D. B. (1995). *The domestic violence sourcebook*. Chicago: Contemporary Books.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7).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7*.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Burgess, A. W., & Holmstrom, L. L. (1979). Rape: Sexual disruption and recove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9, 648-657.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Cate, R. M., Henton, J. M., Koval, J. F.,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Cattell, R. B. (1966). The meaning and strategic use of factor analysis. In R. B. Cattell (Ed.), *Handbook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6, 297-334.

Ellis, L. (1991). A synthesized (Biosocial) theory of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31-642.

Fei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6-179.

Fitzerald, L. F. (1993). *The last great open secret: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in the workplace and academia*. Washington, DC: Federation of Behavioral, Psychological and Cognitive Sciences.

- Groth, N. (1979). *Men who rape*. NY: Plenum.
- Hall, G. C. N. (1996). *Theory-based assessment, treatment, and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G. C. N., & Hirschman, R. (1991). Toward a theory of sexual aggression: A quadripartite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62-669.
- Kelly, L.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oss, M. P., Dinero, T. E., Siebel, C., & Cox, S. (1988). Stranger, acquaintance, and date rape: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victim's experi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1-24.
- Koss, M. P., Goodman, L. A., Browne, A., Fitzgerald, Keita, G. P., & Russo, N. F. (1994). *No safe haven: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t home, at work, and in the commun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isak, D. (1991). Sexual aggression, masculinity, and father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6*, 238-262.
- Lisak, D., & Ivan, C. (1995). Deficits in intimacy and empathy in sexual aggressiv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 296-308.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38-157.
- Malamuth, N. M., & Brown, L. M. (1994). Sexually aggressive men's perceptions of women's communications: Testing three expla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99-712.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4*, 186-196.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Stevens, J.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Warshaw, R. (1988). *I never called it rape*. New York: Harper & Row.
- White, J. W., & Sorenson, S. B. (1992). A sociological review of sexual assault: From discrepancy to diversity. *Journal of Social Issues, 48*, 187-195.

부록. 성폭행 사례

(지시문) 최근 서울의 어느 한 대학에서 발생한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학생상담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건을 상세히 읽고 당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구1에서 사건내용은 필기체로 제시하였음).

그녀는 대학교 2학년생이다. 그녀는 학교의 한 씨클 회원이었다. 그녀는 씨클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다. 그는 다른 씨클의 회원이었다. 그는 3학년 복학생이었다. 그는 잘 생긴 편이었고 키도 컸다. 그녀는 그를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고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느 날 그녀가 다니는 씨클 모임이 교외에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초대하였다. 모임에는 여흥을 위한 시간이 있었고 술과 여러 음식들이 있었다. 그녀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다. 그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말이 많아졌다. 그는 그녀에게 술을 자주 권하였다. 그는 잠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였다. 모임 장소는 담배 연기로 가득하여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였다. 그녀는 잠시 어쩔까 생각하다가 조금 걷기로 하였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두운 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싫지는 않았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가 갑자기 돌아서는 듯 하면서 키스를 하였다.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그녀는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밀치며 뒷걸음을 쳤다. 그는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라고 말하며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러 지마, 이러면 안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고 하였지만 그의 큰 키와 체중으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말하였다. 우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반항을 하면 할 수록 그는 그녀를 거칠게 다루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누구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여야 할지 몰랐다.

Rape Myths Acceptance and Violent Sexual Behaviors

Suk-Jae Lee and Sang-Chin Choi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a) to examine the underlying structure of rape myths, (b) to assess the relationships of rape myths to sexual behaviors and violent sexual behaviors against a partner, (c) to examine how respondents with rape myths perceive the behaviors and minds of actors described in an acquaintance rape case and express their behavioral intention when assumed to be engaged in that situation, and finally (d) to test the relationships of rape myths to the sex-role stereotyping scale (Burt, 1980) and the sex-role inventory (Bem, 1974). In Study 1, data collected from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showed that (a) rape myths consist of 4 factors: Attribution of rape responsibility, victim's sexual experience, victim pleasure and victim fabrication, and misunderstanding of a partner's behavior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ly correlated relationships between rape myths and sexual behavio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Male students reported more sexual experiences and violent sexual aggression than female students. In Study 2, rape myths we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sculinity in sex-role inventory, indicating that personality traits could b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rape myths. Discussion focuses on the plausible psychological processes between rape myths and sexual behaviors.

Keywords: rape myths, rape myths acceptance scale, sexual behaviors, sexual aggression

원고 접수: 2000년 12월 20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